

“지속가능 성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AI 차단방역 행정력 결집 대응

문동신 군산시장, 군산시의회 정례회의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 제시

“3선 연임을 하면서 군산의 변화를 통해 주위에 감동이 전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군산시장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23일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8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군산시장으로서의 지난 11여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18년 시정운영 기본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관광광역화, 어린이행복의 3대 핵심과제 지속 추진과 인구질병 해소, 제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등 핵심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40개월 연속 인구증가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저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구정책계를 신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비롯하여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이 군산을 떠나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군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업유치 대응과 산업구조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여행마와 고군산군도, 축제와 먹거리를 연계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5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전국 관광 1번지가 되도록 경쟁력을 키워가고,

올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어린이행복 부부학교의 확대 운영과 어린이 권리확산, 증진을 위한 여러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만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정목표의 완수와 함께 현안사업 마무리,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발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사업과 지방하천정비 등 2017년 대비 918억원이 증가한 9,792억원의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특히 그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 발전해 온 경험을 토대로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군산전북대병원을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23일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8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군산시장으로서의 지난 11여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비롯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 시장은 지역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바다의 날과 세계여성한민족네트워크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군산시의 위상을 대내

외에 널리 알린 점과 새만금 사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2023세계잡버디 대회의 새만금 유치,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관광객 300만 달성을 올해의 가치 있는 성과로 들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거점 소독시설 설치·철새도래지 통제 등 총력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를 위해 집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서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서수면(주)동우 앞에 거점소독시설을 미리 설치하여 관내로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AI 방역대응 체계를 12개 재난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대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예찰경보에 나서는 등 가축방역 상황에 24시간 상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순천만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철새에 의한 감염경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 탐조객과 자전거 동호인이 몰리는 나포면 일원 금강호 제방 진입로를 통제하고 탐조회랑 2곳 모퉁이를 폐쇄 조치했다.

인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병원성 AI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청정 축산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시민 모두 AI 차단방역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25일부터 광역방제기 5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인 나포면 십자달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철새 등으로 인한 AI 바이러스가 관내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농협,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펼쳐

군산농협(조합장 강춘문)은 여성조직 회원들과 22일 지역에서 합계겨울을 맞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군산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춘자)과 고향주부모임(회장 송마숙) 회원들이 지난해 공동수외사업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되었으며, 17기 여성문화대학 교육생들이 참여해 연탄 2,200장을 구입해 300장씩 5가구에 사랑의 릴레이로 직접 배달하였고 나머지는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 통해 지역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시민 중 한분은 “연

탄창고가 가득채워지는 것을 보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고 농협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봉사에 직접 참여한 회원들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들이 여는 해마다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춘문 조합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여성조직들이 나눔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하며 “군산농협 임직원들은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해 우리지역에 소외된 그들이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휴식공간 조성

군산시, ‘해망자연마당’ 자연환경대상 수상



물인 석축을 재현함에 돌담 돌수로, 물넘이, 월류보 습지보, 생태수로 등 다양한 물길을 만들어 생물 서식처를 확보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했으며, 지역민의 삶의 애환을 재현하는 주거지 상징물, 우물복원 등 철거민들의 스토리를 입혀 과거와 현재가 만나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 공간도 조성했다.

또한 월명공원과 산책로로 연결되어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탐방로에 자연석 포장 외에도 아자메트, 잔디관석, 황토포장 등 다양한 바닥재를 활용하여 걷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며,

군산항의 부잔교를 모티브로 설치된 뜰다리 전망대는 인근 장항 지역과 군산항, 금란도, 동백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어 바다 내음을 맡으며 여유롭게 군산항 일원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하림·그린바이텍 지역사회에 ‘통큰기부’

(주)하림과 (주)그린바이텍(대표이사 이문용)이 익산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주)하림과 (주)그린바이텍(대표이사 이문용)가 익산지역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희망복지 지원 성금 5천 만원과 7천 만원 상당의 장난감과 도서류 등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이번에 기탁된 7000만원 상당의 장난감 및 도서류에 대해서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영유아가정의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또, 5000만원의 성금에 대해서는 전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청소년 희망나무 장학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문용 대표이사는 “하림이 익산에 분거지를 두고 성장한 기업인 만큼 익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감사한 마음이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기탁을 하게 되었으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지역자원봉사단체 2곳 사랑나눔투어 봉사

익산시 동근마을 자원봉사단, 시민봉사단체 아우름 봉사단이 함께 손을 잡고 지난 23일 모란동 배산후면시아 4단지 아파트 광장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40여분을 모시고 사랑나눔투어 봉사활동 행사를 가졌다.

두 개 단체의 사랑나눔 봉사활동에 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초청가수의 흥겨운 노래, 우쿨렐레 연주, 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점심으로는 따뜻한 떡국떡을 대접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늘 혼자 밥을 먹다가 함께 식사도 하고 재미있는 공연도 보여줘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하고 봉사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된 사랑나눔 투어는 동근마을 자원봉사단이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2016년 9월부터 아우름봉사단이 합류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